

나주 '365일 돌봄 보육실' 문 열었다

전남 최초...내달 4일부터 운영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아동 대상 시간당 3000원에 돌봄 서비스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1년 365일 문 여는 '시간제 보육실'이 나주에 마련된다.

나주시는 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365일 1년 내내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실을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 위탁 보육시설에는 빛가람동 킷터브레인 어린이집(그린로 276 에듀캐슬 아파트)이 선정돼 개원식을 지난 22일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윤병태 시장과 사·도의원,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365일 시간제 보육은 민선 8기 공약인 '영유아 시설 지원 확대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나주에 사는 직장을 둔 부모의 생후 6개월에서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다.

지난 7월 기준 나주지역에서 365일 시간제 보육 사업 지원대상(생후 6개월-7세 이하 미취학)은 모두 7016명으로 집계됐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자녀를 돌



나주시(시장 윤병태·가운데)가 빛가람동에 365일 내내 미취학 아동을 돌봐주는 '365일 시간제 보육실' 개원식을 열고 10월4일부터 운영한다. 최근 열린 개원식. <나주시 제공>

봐준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와 야근, 병원 진료·입원 등과 같은 긴급한 사정8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육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나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직면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전남 최초로 365일 내내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완도 도서지역 전기차 충전소 25대 설치한다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

완도군 금일, 노화, 생일, 금당 등 도서지역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완도군은 환경부 주관 '2023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선정, 사업 추진을 위해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우철 군수와 현준용 LG유플러스 EV 충전사업장은 협약에 따라 금일, 노화, 소안, 생일, 금당 등 도서 지역을 비롯한 신지, 고금 등 충전 취약 지역에 급속충전기 20대, 완속충전기 5대를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24시간 관제 센터 운영, 즉시 출동이 가능한 유지 보수망도 구축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완도군(군수 신우철·왼쪽)이 환경부 주관 '2023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선정돼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전소 등 전기차 이용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65세 이상 광양 어르신 11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광양에 사는 65세 이상 시민은 오는 11월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탄다.

광양시는 11월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는 신분증을 갖고 각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모두를 가져가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시민(1958년 11월1일 이전 출생)이다.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로는 (☞광양교통 시내버스)만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순천교통(77-777번), 여수여객(610번) 노선은 이용할 수 없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사업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광양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기찬자연휴양림 숙박동.

영암에 산림휴양시설 '기찬자연휴양림' 개장

숙박동 10동·야영테크 등 갖춰

숲속 산책로를 걷고 야영장에서 숙박하며 쉴 수 있는 '채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영암에 문을 연다.

영암군은 오는 10월4일 미암면 기찬자연휴양림 다목적광장에서 영암 최초 채류형 산림휴양시설인 '기찬자연휴양림' 개장식을 갖고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기찬자연휴양림은 지난 2020년 전남도의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에 따라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암면 미암리 곤미현 일대 46ha에 마련됐다.

이 곳에는 새로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포함해 숲속 숙박동 10동, 야영 테크 5개소, 방문자센터, 피크닉장, 주차장, 쉼터 등이 설치됐다.

또 400m에 이르는 '활기찬 숲' 산책로, 숲속 지구 주변 산책로, 진입로면 암석정원, 야간 경관조명, 포토존 등이 갖춰져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볼거리와 걸 거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휴양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구역별로 CC-TV 11대를 설치해 안심하고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영암군은 기존 생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휴양림과 연결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휴양림 예약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숲나들'에서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찬자연휴양림이 영암을 대표하는 대국민 '채류형 관광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현 기자 jbh@kwangju.co.kr



김보미(가운데) 강진군의회 의장이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진군의회 제공>

강진군의회 버스터미널 매수 비용 전액 삭감

15건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가결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식의원)가 심사한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버스여객터미널 특혜 매수 논란' <광주일보 2023년 9월 6일자 14면 보도>과 관련 강진버스터미널 건물, 부지매수에 대한 계약금 6억7000만원 등 7건에 대해 전액 삭감 조치했다.

군의회 이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진버스여객터미널 매입감정가가 턱없이 높고, 용지 매입 30억과 추가로 66억8800만원 등 10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며 "군비 부담이 크고 터미널 부지가 아닌 토지 2필지 구입비 10억4600만원도 포함되어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벗어나지 못

한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 터미널 이전에 대해 복잡한 도심부를 피해 터미널 이전 신속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점도 전면 재검토 이유로 들었다.

이 외에도 성전면 성화대 폐교 건물에 전국 유명작가 미술작품을 전시할 200억원이 투자될 '강진미술관' 기초용역비 5500만원도 삭감했다. 국·도비 예산 미확보 시 전액 군비투입에 따라 군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1340만원 등 사무처리비를 삭감하는 등 선심성과 낭비성 예산 성격이 짙은 5건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김보미 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재 유가와 물가가 폭등하고 고금리가 계속되는 등 국내외의 어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민생을 더욱 세밀히 살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